

## 5.12 상반기 지방직 <한국사> 기출해설(C책형)

해설 : 전한길 교수(월비스고시학원, EBS방송강사[전체 강평 1위])

### 총평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4월의 국가직 시험보다는 어려웠다. 시험 후 수험생들의 반응을 보면 아마도 이번 지방직 시험과목 중에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지가 생소한 것이 두 문항이 출제되었다. 즉, 조선 초기 명과의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문제와 성종 때 서거정의 동문선을 가리키는 선지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근현대사 문항 중에서는 윤봉길의사의 의거를 묻는 선지를 선득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그 외의 문항 중에서는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사역원을 통한 중인 신분과 고려 승탑 중에서 신라와 다른 양식인 지광국사 현묘탑을 묻는 문항이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별개로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를 충실히 보신 분이라면 90점은 맞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20문항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문항은 위에서 말한 고난도 문항 두 문항 뿐 이었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수록된 내용들이다. 즉, 기본에 충실해서 꼼꼼하게 교과서를 분석했던 분이라면 지난 번 국가직 시험보다 오히려 고득점을 통해서 변별력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향후 시험에 한국사 고득점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두꺼운 공무원 수험서를 펴놓고 안개 속을 헤매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내용만큼은 먼저 완전 마스터를 해서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한 후에 공무원 수험서의 내용을 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면, 무조건 두꺼운 공무원 수험서로 끝장 보겠다는 수험생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 읽어 가는 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다. 실제로 최근 2년간의 한국사 과목은 9급, 7급을 막론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만 완전히 마스터를 해도 90점은 가능하도록 출제되었다.

### 문 1. 후삼국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훤은 900년에 무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② 궁예는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 ③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
- ④ 견훤은 후당(後唐), 오월(吳越)과도 통교하는 등 대중국 외교에 적극적이었다.

1.정답:①

후삼국시대를 묻는 문제로 견훤은 900년에 후백제를 세우고 무진주[광주]가 아니라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였다.

### 문 2. 다음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租)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 (나) 국가 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 (다)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① (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 ② (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 ③ (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 ④ 시기 순으로 (나), (다), (가)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2.정답:③

제시문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는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아니라 지방 관청에서 직접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 (나)는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을 위해서 실시한 과전법, (다)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이 지급된 직접법에 대한 설명이다. 16세기 명종 때에 가면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직전마저도 폐지되면서 관리들에게 녹봉만 지급하게 되자 토지에 대한 사유화가 확산되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어갔다.

문 3. 조선시대 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 ② 경시서를 두어 시전과 지방의 장시를 통제하였다.
- ③ 시전은 보부상을 관장하여 독점판매의 혜택을 오래 누렸다.
- ④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3.정답:④

조선 시대 시전은 종로 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던 상점이다. 시전에서 장사하는 시전상인은 원래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국역의 형태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중에서 가장 번성하였던 상점을 육의전이라 하였으며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조선 후기 1791년 정조 때에 가면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에 주어졌던 금난전권이 철폐되었다.

문 4. 다음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국왕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전하께서는 ...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해 제가(諸家)의 작품을 뽑아 한 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하의 위촉을 받아 삼국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辭), 부(賦), 시(詩), 문(文) 등 여러 문체를 수집하여 이 중 문장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분류하여 130권을 편찬해 올립니다.

- ①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고, 사창제를 도입하였다.
- ② 서울의 원각사 안에 대리석 10층탑을 건립하였다.
- ③ 재가녀 자손의 관리 등용을 제한하는 법을 공포하였다.
- ④ 정읍사, 처용가 등이 한글로 수록된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4. 정답:②

제시문은 성종의 명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전해져오던 우리나라 사람이 쓴 좋은 작품 130편을 모아서 정리한 서거정의 동문선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 때 건립하였다.

문 5. 밑줄 친 ‘공(公)’이 속한 신분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公)은 열일곱에 사역원(司譯院) 한학과(漢學科)에 합격하여, 틈이 나면 성현(聖賢)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쉬는 날 없었다. 경전과 백가에 두루 통달하여 드디어 세상에 이름이 났다. ... 공은 평생 고문(古文)을 좋아하였다.

- 완암집 -

- ① 조선 초기 - 개시 무역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 ② 조선 중기 - 서원 건립을 주도하고 성현들의 제사를 받들었다.
- ③ 조선 후기 - 소청 운동을 통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개항 전후 - 외세 침략에 맞서 위정 척사 운동을 주도하였다.

5.정답:③

제시문에서 사역원 한학과[역과]에 합격했다는 것을 통해서 중인인 역관 신분임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철종 때 소청운동을 전개하여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시, 후시 무역은 조선 초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해당되고, 서원 건립을 주도한 것은 양반 사립들이고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한 것은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이다.

문 6. 조선시대 각 시기별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 류큐에 불경이나 불종을 전해주어 그곳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 ② 16세기 :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비변사로 하여금 군사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 ③ 17세기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팽배해졌다.
- ④ 18세기 : 청과 국경분쟁이 일어나 양국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정계비를 세웠다.

6. 정답:③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서북 지방은 황폐화 되고 청에 대한 적개심과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해 북벌론이 제기 되었다.

문 7. 밑줄 친 ‘상(上)’의 재위 시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 책이 완성되었다. ... 곤봉 등 6가지 기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나왔는데 ... 장헌세자가 정사를 대리하던 중 기묘년에 명하여 죽장창 등 12가지 기예를 더 넣어 도해(圖解)로 엮어 새로 신보를 만들었고, 상(上)이 즉위하자 명하여 기창 등 4가지 기예를 더 넣고 또 격구, 마상재를 덧붙여 모두 24가지 기예가 되었는데, 검서관 이덕무·박제가에게 명하여 ... 주해를 붙이게 했다.

- ① 민(民)의 상언과 격쟁의 기회를 늘려주었다.
- ②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재정리하였다.
- ③ 균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 ④ 5군영 대신 무위영과 장어영 등 2영을 설치하였다.

7.정답:①

제시문은 정조 때 편찬된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 속에서 "사도세자의 또 다른 이름인 장헌세자에 대한 언급과 정조 때 서얼 출신으로서 검서관으로 활동한 이덕무, 박제가 등을 통해 제시된 왕은 정조임을 알 수가 있다. 정조는 화성 행차 등을 통해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언과 격쟁[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 거동하는 길가서 징이나 팽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하던 제도]의 기회를 늘려주었다.

대전회통은 고종 때 홍선대원군이 편찬한 법전이고 정조 때는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균역법은 영조 때이고, 무위영과 장어영은 고종 때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구식군대는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축소되었다.

문 8. (가), (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운하는 자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강토를 집어 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나)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 정신이 보존되어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① (가) -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② (가) - 독사신론을 연재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③ (나) - 조선 불교 유신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추구하였다.
- ④ (나) - 낭가 사상을 강조하여 민족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였다.

8.정답:②

제시문의 (가)는 민중직접혁명론을 제시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의 일부이고, (나)는 박은식의 한국통사에 나오는 '형신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제시한 것은 한용운, 낭가 사상을 강조한 것은 신채호 선생이다.

문 9. 밑줄 친 ‘그’가 일으킨 사건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1월 28일 일본승려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도발하였다. 일본은 이때 시라카와(白川) 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이해 봄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한 뒤,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 겸 전승축하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장에 참석하여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파견군사령관 시라카와,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 등은 즉사하였다.

- ① 이를 계기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 ② 한국 광복군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 ③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 ④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9.정답:②

제시문은 ‘4월 29일’과 ‘전승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 1932년 4월 29일에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사의 의거임을 알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민당 장제스 총통은 중국 내에서 임시정부의 무장 투쟁을 허용함과 동시에 김구 선생을 만나서 중국 낙양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편성해주는 등의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1940년에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문 10. (가), (나) 발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경의선 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 ② 북한에서 국가 주석제가 도입되었다.
- ③ 남북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처음 방문하였다.
- ④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10.정답:①

(가)는 7.4남북공동성명이고, (나)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 72년과 2000년에 있었던 일이다.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 복구공사가 착공된 것은 02년 김대중 정부, 북한의 주석제는 1972년 12월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 남북 이산가족 첫 상봉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다.

문 11.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추수용 도구로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다.
- ②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 ③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제천 창내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등이 있다.
- ④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권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11.정답:①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청동기 시대에 와서도 청동기의 재료인 구리는 귀했으므로 여전히 생활 도구는 간석기가 사용되었다. 반달돌칼, 흙자귀, 바퀴날 도끼 등이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간석기이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제천 창내 유적과 서울 암사동 유적은 각각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유적,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고 정치권력을 가진 군장국가가 등장하였다.

문 12. 각 나라별 생활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조선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였다.
- ② 동예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 ③ 부여 - 길흉을 점치기 위해 소를 죽였고, 매년 10월에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④ 고구려 - 신부 집 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다.

12.정답:③

부여에서는 온 나라가 대회를 열고 연일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 영고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수렵 사회의 전통으로 10월이 아니라 12월에 열렸다.

문 13.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고구려의 흥안령 일대 장악
- ㄴ. 백제의 사비 천도
- ㄷ. 신라의 마운령비 건립
- ㄹ. 전기 가야 연맹의 약화

- ① ㄱ → ㄹ → ㄷ → ㄴ      ㄱ → ㄹ → ㄴ → ㄷ
- ③ ㄹ → ㄱ → ㄷ → ㄴ      ㄹ → ㄱ → ㄴ → ㄷ

13.정답:④

고구려의 흥안령 일대를 장악한 것은 장수왕(5세기) 때이고, 백제의 사비 천도는 6세기 성왕 때(538)이며, 신라의 마운령비 건립은 6세기 진흥왕 때(568)이다. 전기 가야 연맹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 정책으로 5세기 초에 김해 중심의 금관가야는 해체 되고 5세기 후반에 가서 다시 대가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문 14.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신도의 하나로, 북쪽 방위신이다.
- ② 돌무지 덧널무덤의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 ③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였다.
- ④ 고구려 시대의 고분에 그려졌는데 도교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14.정답:②

제시된 그림은 굴식돌방무덤인 고구려 강서고분의 사신도 벽화 중에서 북쪽 방위신에 해당되는 현무도이다. 사신도는 도교 방위신이면서 동시에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는 도교의 영향이다.

문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문무왕 8년(668)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내리고 ㉠ 식읍 500호를 주었다.
- 신문왕 7년(687) 문무 관리들에게 ㉡ 관료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 신문왕 9년(689) 내외 관료의 ㉢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주었다.
- 성덕왕 21년(722) 처음으로 백성에게 ㉣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① ㉠ -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 ② ㉡ -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였다.
- ③ ㉢ -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 ④ ㉣ - 왕권이 약화되는 배경이 되었다.

15.정답:①

신라에서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식읍을 지급하였고, 귀족에게는 녹읍을 지급하였다. 하급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것은 고려시대 전시과 중에서 구분전이다. 통일신라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은 농민경제 생활 안정과 동시에 백성에 대한 왕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 16. 밑줄 친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에 사신을 보내어 조선의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줄 것과 국호의 제정을 명에 요청하였다.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의 정치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은 명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다.

- ①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인의 송환을 명이 요구함으로써 생긴 갈등
- ② 조선이 명에 보낸 외교문서에 무례한 표현이 있다는 명의 주장에 따른 갈등
- ③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었다는 중국 측 기록을 둘러싼 갈등
- ④ 조선의 조공에 대해 명 황제가 내린 회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은 데 따른 갈등

16.정답:④

조선 초기에 명과의 관계는 태종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만 태조 때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의 준비와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 적도 있었다. 즉, 명에 보낸 외교 문서에 무례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과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한 문제,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인의 송환을 요구함으로써 생긴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조공에 대한 명 황제가 내린 회사품은 조공 액보다 많았다. 그래서 오히려 명의 요청보다 더 많은 조공이 행해졌다.

문 17.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②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주진군으로 편성되었다.
- ③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발해 세자 대광현을 왕족으로 대우하였다.
- ④ 광종은 황제라 칭하였고, 개경을 황도(皇都)라 불렀으며,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17.정답:①

고려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것은 군·현과 진까지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문 18. 고려시대의 건축과 조형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